

기질의 변화와 시험

골로새서 3 :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 :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좃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은 기질과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신앙 생활이 어때요?’ 하고 물어 보면,

‘예수님을 오래 전부터 믿었지만,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거나,
또는,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중의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기질과 시험에 관한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기질의 단점을 잘 극복하면 신앙 인격은 점점 금과 같이 반짝이는 인격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사람은 타고난 leader 야 말합니다. 혹은 베드로나 다윗은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야,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이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 된 것이
자연적으로 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들은 아무 노력도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신앙 인격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자신의 기질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잠언 16 :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구에게든지 기질은 타고 나는 것이며, 기질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약점이라고 해서 극복을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 안에는 일평생 싸워야 할 타고난 약점이
한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이 우리의 기질에 의해 말미암는 다는 것을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어떤 부분들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control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기질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질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축출할 수 있습니다. 축출한 그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지배가 그의 인격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기질의 단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기질을 처리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실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 다윗처럼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계신 분은 모두 정신을 집중하여 제 설교를 듣고 이해하여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1. 기질은 무엇인가?
2. 기질로 말미암는 시험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인가?
2. 기질로 말미암는 시험의 예
3. 기질을 극복한 유익은 무엇인가? 예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기질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백인의 기질이 있고, 흑인은 흑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인이건 간에 그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또 민족 안에서도 각 가문마다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은 사람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특성들을 말합니다.

주전 400년경의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에는 네가지 기본적인 형태, 즉 다혈질과 담즙질과, 우울질과 점액질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은 한가지 기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되어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질이 있으며 그것이 그 사람의 대표적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들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질이든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 드릴테니깐 자기가 어느 기질에 속하는가 보십시오.

먼저 각 기질이 갖는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은 온화하고 낙천적이며 생기있고 모든 것을 즐기는 기질입니다. 사교적이고, 명랑하고 정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담즙질이 있습니다. 담즙질은 열열하고 급하며 능동적이고 실제적이며 의지가 강한 기질을 말합니다. 목적 지향적이며, 실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끈질긴 성격의 지도자 style 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에 우울질이 있습니다. 우울질은 대체로 침침하며 어두운 기질로 표현됩니다. 이 기질은 분석적이며, 완전 주의자이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엔 점액질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느리며 냉정하며 태평한 성질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각 기질이 갖는 단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심사숙고보다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다혈질의 끝없는 활동들은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다혈질은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부탁 받으면 즉각 ‘예’ 하고 대답을 하지만, 자신의 시간, 능력 그 외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대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담즙질은, 거칠고 화를 잘내며 성급하고, 오만합니다. 감정적 결함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 냉담합니다. 화를 잘내는 성격은 그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힘듭니다. 개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담즙질은 분노와 화를 잘냄으로 인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질은 자기 중심적이며 항상 심사숙고하고 자성(自省)을 하는 형인데, 자신과 남의 정신 상태를 해부하고, 양과 껍질을 하나 하나 벗기듯 자신과 남을 벗겨내어, 자기의 생활에 자연스러운 것이 없으며, 사소한 문제도 그에게는 큰 문제로 남게 됩니다. 남의 비판을 잘하는 면에는 우울질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선 상처받은 기억을 지우기가 힘들고,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오랜 동안 증오심과 보복심을 품은 채 지내게 됩니다.

점액질의 단점은 느린 것과 게으름입니다. 어떤 일이든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하는 편인데, 자기가 그 일에 너무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사리고, 자신의 활동력을 아끼며 고집이 셉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어 가지만, 태평스러운 유머로 자기의 완고한 점을 감출 줄 알게 됩니다. 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선, 점액질은 마음속으로 자기의 계획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가담하여 일합니다.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 합니다.

이상의 것들이 각 기질이 갖는 장점과 단점들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면,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거나,

둘째는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약해서 아직도 죄가 우리의 기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경향이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의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 깊은 성경 공부와 성령님의 훈련을 통해 치유해야 합니다.

2. 우리에게 기질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에게 기질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까? 기질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혹자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적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시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병적으로 강한 도착심리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박, 여행벽, 물질욕, 성도착증, 놀음벽을 가진 이상 심리자 들에게만 시험이 더 많고, 보통 사람은 시험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적 측면에서 기질들을 보면, 종류가 다를 뿐 모두가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 생활에 장애를 주는 부분이 한군데 이상씩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런 모자른 부분이 들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기질의 좋은 부분이 들어 날 뿐만 아니라, 나쁜 단점도 시험을 통해 점점 들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기질의 장점은 더욱 좋은 품성으로 정화시키고, 기질의 단점은 매일 매일 고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신앙 생활은 도태해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점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담즙질과 우울질을 겸하여 나타냅니다. 불같은 집념으로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 간 것은 담즙질의 기질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조용히 쉬지 않고 수많은 서신을 교회에게 쓴 것은 목적 지향적인 그의 담즙질적 기질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후의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깊이 사고하는 우울질의 기질 때문입니다.

담즙질인 사도 바울은 목표지향형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시작하면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어떤 난관과도 싸워 목적인 바를 성취해 놓고야 마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부정적 효과가 있어, 자기처럼 그렇게 하질 않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간에 마찰이 잘 생기고 혼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담즙질은 감정이 격하고 독선적이며, 냉정하여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가로 인하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고생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 갔기 때문에, 이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그를 다시 데리고 떠나나지 않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행전 15:36-41 에는

사도행전 15 : 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사도행전 15 :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도행전 15 :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도행전 15 :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행전 15 :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사도행전 15 :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것은 담즙질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지향적이며 집념의 담즙질인 사도 바울의 기질이,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면에서는 인색하여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인간적 마찰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위대한 사도이거나 평범한 인간이거나 성령님이 기질을 다스리고, 성령님이 교회를 controll 하지 않으면, 모자른 인간들만 있는 교회 생활에서는 사람 간에 오는 마찰로 인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격이 없고, 또 선천적으로 완벽한 영적 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 마찰들은 기질이 만들어 내는 비현상적 요소로 알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의 머리임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질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는 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대로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다혈질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심사숙고보다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낙천적으로 명랑하게 휘파람을 불며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 능력 그 외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쉽게 장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혈질의 약점은 의지가 약한 것과 자기 훈련이 부족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쉽게 낙담하고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밤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6 : 33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 :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 : 35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럴 때 베드로는 아주 용감해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다혈질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 가겠다고 장담하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기질에 의해 생각이나 고집이 둘러싸여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육신의 능력이 이렇게 약하고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성령님께 호소하며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질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기질을 성령님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환란 가운데 변한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격하고 독선적이며, 냉정하여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힘든 기질이였기 때문에, 그는 이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전 15:32 에서

고린도전서 15 :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맹수와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고전 9:25-27 에서는,

고린도전서 9 :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 :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강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타고난 기질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질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이건, 담즙질이건, 우울질이나 점액질이건 간에, 이런 기질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행동의 경향과 양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양의 기질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이 다양성을 가진 가운데 조화하고 통일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각 사람의 기질 안에 있어야할 조화와 통일이 깨져 버렸습니다. 기질 안에서 인격의 분열이 일어 나게 된 것입니다. .

인격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기질을 지배해야 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 있어서나 성령님이 기질을 지배하지 않으시면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에베소서 4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질을 지배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각 사람의 기질을 옷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 : 9-10 에서,

골로새서 3 : 9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 : 10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조화와 통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